

영광의 흰머리(누가복음 강해 5)

성경말씀: 눅2:21-38

대부분의 사람들(젊은이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 나 역시 그랬다. 30년이 지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복지, 삶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심지어 자식들의 외면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노인은 나 자신, 나의 과거, 나의 미래이다.

성경은 노인들 공경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긴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레19:32).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딤후5:8)

요즘 저의 어머니 소원: 아프지 않고 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죽을 때 걱정 없이 죽는 사람’

“나 죽어 시신 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나와 시신 따로 없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나온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보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

들, 그리고 끝에 다시 한 번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 이야기를 다루신다.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잠16:31). <영광의 흰머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이야기, 가장 큰 행복

배경

21절: 여드렛날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창17:12, 99세)

바로 그 날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확정함(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이만희, 안상홍 이방인 메시아는 No!

22-24절: 레12장의 여인의 정결례, 아들의 경우 40일이 지난 뒤 번제 헌물(1년된 어린양)과 죄 헌물(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난하였으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림

25-38: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남

시므온의 나이는 나오지 않으나 29절을 보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안나는 36-37절에 따라 매우 나이가 많았다. 15세 시집, 7년 결혼, 과부 84년, 106세 기적

이 두 사람의 특징: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평안히 죽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지금은 재림의 때이다. 우리와 교회의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주님께서 우리 때에 오시면

죽지 않고 휴거 받아 주님을 볼 것이고 재림을 늦추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평안히 죽어야 한다. 평안하다는 말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마10:28).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암4:12).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 평안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성

23절: 시므온(듣는다)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1.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들은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눅1:6).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쓰신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실하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구체적인 사례가 37절의 안나(구약의 한나, 은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은 성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줄로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말3:1).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이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신약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노인들의 특성

구원받아야 한다.

딤후2:2-5

바로 이런 사람이 평안히 죽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다.

4. 한마디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25).

26절: 꿈이 존재하던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마귀의 그리스도도 있다: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도 있다:

거짓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완전한 계시 성경을 주셨다.

5.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계시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이 되고 평안이 된다.

시므온과 안나의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전쟁과 가난으로 살기가 힘들

6. 이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독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다.

이 주님이 곧 이스라엘의 위로(25),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분(38)

7.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이 지났다. 세상이 변화였다: 진화론, 범신론, 상대주의, 도덕과 윤리의

타락, 성경 변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시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8. 우리 마음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잘못된 예수는 인생을 망치게 한다.

성경속의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사람,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심판자. 우리의 형제

9.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과 육체의 죽음이 평안이 될 수 있다.

29절의 시므온의 고백: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게 허락하옵소서.

평안히 죽으려면 혹은 평안히 휴거를 받으려면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30).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이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자이다(32).

행4:12

10. 예수님이 하시는 일:

1. 많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34).

예수님이 가면 사람이 둘로 나뉜다. 실족하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틀에 박힌 종교인,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비방의 표적이다(34). 십자가를 선포함이 어리석은 일이다(고전1:18).

일어나는 사람(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자들,

이단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

2.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히4:14).

의인: 그리스도의 심판석, 죄인: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석

사람 마음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난다(렐17:9-10).

결론

사람은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한다.

천국행 티켓은 유일하게 어린양의 피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